

여는기도(또는 사도신경)/ 찬송가 433장/

바울의 감사

빌립보서 1:3-8

I. 들어가며

은혜에 참여한 자, 존재적 변화와 변화된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라 부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갖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II. 바울의 감사 = 성도의 감사

A. 첫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5절), 바울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7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재, 바울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기껏해야 에바브로디도나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했다고 합니다. (5절, 7절 ‘참여했다. κοινωνία / koinonia’ 참여, 교제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7절에서 ‘복음의 변명함, 복음의 확정함’이라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연보함을 함께함, ‘교제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과 감사, 성도의 참된 교제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한 번 교회에 방문하여, ‘믿음으로’ 보내신 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와 기쁨, 참된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일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 나눔 01. (나눔질문)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나의 감사의 이유와 바울의 감사의 이유를 비교해 보고, 감사의 나눔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B. 둘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이 복음의 일의 시작과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해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아자 아자 힘을 모으자,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6절을 덧붙입니다.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첫날부터 이 사역에 동참한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 시작마저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세세한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한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동참하신 그 주님께서 동참케 하셨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보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장거리를 걸어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온교회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이 주관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뜻깊은 일이 있을 때, 은혜의 사역이 마쳤을 때, 예의 차원에서라도 누구의 이름을 높여주고 격려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한 모두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완성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어퍼함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나, 그 사역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그 사역을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C. 셋째, 사도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도는 성도의 감사의 이유를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성도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사역에 누군가 후원을 해준다면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즉 자기의 필요가 이루어지니 기쁘고 놀라와서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 이면에 있는 궁극적인 영혼의 필요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면에 그들의 심령의 어퍼함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곤고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노이스’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질 듯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필요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영혼의 궁극적 문제를 바라보시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셨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의 근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에게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40)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사랑은 가능할지 모르지
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사랑을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말
씀하신 명연설중 하나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기
뻐하고 감사하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줬으니 고맙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
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즉,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
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심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
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나눔 02. (나눔질문) 인간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렇게 사랑을 노력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
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II. 결론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필요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영광받으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신가요? 그 예수께서 이 일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십니
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들을 사
랑하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심장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역원 기도제목 나눔

마침기도(또는 주기도문)
